

광양시, 2022년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광양시는 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4차)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9월 3차 사업을 공고한 후, 잔여 사업비 5억 7천만 원(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으로 시행하며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광양시 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감일인 2022년 11월 18일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유효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미리 접수해야 한다.

사업대상은 광양시 소재 사업장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고, 2021년 9월부터 잠정 중단된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도 재개됐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4~5종 사업장 같은 경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설치하는 것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나, 지원받지 않은 다른 방지시설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

정해 방지시설 설계자료 등을 제출하면, 시는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 최종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효율 높은 방지시설로 교체 설치해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민방위 업무 평가 우수기관 표창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전남도로부터 2022년도 민방위 업무 발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 곡성군은 전남도로부터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 훈련 운영,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에 대해 견열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민방위 업무 전반에 대한 탁월함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당시 전라남도는 8월 을지연습 우수 기관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기 표창 수여를 미루다가 시상식을 진행했다.

곡성군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장비관리, 교육 훈련, 비상 대피 및 급수 시설 계획 등을 꼼꼼하게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립 이후에도 자체 견열을 통해 편성과 시설 및 장비비를 수시로 보완하며 민방위 지원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 주민의 원활한 대피를 위해 비상 대피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규모와 경로, 대피 인원, 안내 표지판, 유도 표지판, 비상용품함 등 고려해 구체적인 비상 대피

계획을 수립해 유지 관리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국지 도발, 전시 등 비상 사태 발생에 대비해 민관군 합동 비상 급수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을 통해 곡성군은 단전 및 상수도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 급수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해당 훈련은 전라남도 지정 실제 훈련으로 비상 급수 시설의 관리 상태 확인과 급수 적재, 주민 배분까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방위 대원들이 본인의 임무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도 내실 있게 운영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합 교육과 비상 소집 훈련 등 대면 교육 실시가 어려워지자 곡성군은 모든 연차별 대원에 사이버 교육을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심선섭 기자

여수시, 자연재난 사전대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4일까지 사전대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먼저 13개 기능 19개 협업부서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우려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기상특보 발령 시 단계별 상황대응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제설장비와 자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중앙비의 경우 여수시 건설기계연합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원장비로 지정하고, 응급복구 상황발생시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근로자 등 한파위험 노출자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에도 나서는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막 등 각종 한파 저감시설과 한파 쉼터 400여 개소에 대한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최영철 여수시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개최된 '2022 전국 발효식품 홍보대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 참가자들과 함께 '전국 발효음료·발효소스 경진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2022 전국 발효식품 홍보대전' 성료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개최된 '2022 전국 발효식품 홍보대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 참가자들과 함께 '전국 발효음료·발효소스 경진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우수 발효식품의 발굴과 발효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열린 전국 발효음료·발효소스 경진

대회는 '발효음료&식초 분야'와 '발효소스 분야'에 총 20명이 참가해 분야별 6명씩 총 1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밖에도 30개 팀이 참여한 발효식품 전시·홍보관도 시식과 경품추첨 등의 즐길 거리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 건배주와 음

료 개발을 위한 막걸리와 콤포차 시음 행사가 함께 치러져 500여 명의 참가객들을 대상으로 7종의 막걸리와 8종의 콤포차를 선보였다.

막걸리와 콤포차를 시음해 본 참가객들은 선호도 조사에 임하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공식 건배주 등 음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유빈 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대학생들 위한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 추진

구례군이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구례군민들을 위한 주거생활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최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꼼꼼한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구례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예정돼 있던 행사들의 연기 및 축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 제110회 열린강좌 홍보,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꼼꼼한

마무리 등 적극적인 운영 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다른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주거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하반기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약 1개월간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방문·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중 선택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지원 기준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이어서 하며,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건식 기자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결사반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투기 소음에서 지켜주세요

황토와 갯벌, 생명의 땅 무안에 군 공항 이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